

### 연설 3 : Prajit Datta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와 전반적인 규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이 규제의 정의가 이곳의 모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여성들은 가족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남자들은 언제나 아내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독신자들과 독신 주의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란 무엇입니까? 규제라는 것은 한 조직이 특정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만약 지금 이 강당에서 전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화기를 계속 꺼두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제가 바로 규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들은 금융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을 통제하고 자산을 보호할 감시역도 없을 뿐더러, 안전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몇개의 세계적인 금융 감독 당국을 보여 드리면서 왜 규제들이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덕에 경제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궁극적으로 각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존재 하지않았다면 당장 경제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큰 영향은 고용 분야에 미칠 것이고 중국적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국가가 외국 무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세계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모든 통제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사업적 이점을 위해 조정을 하고 루프를 발견할 수 있는 누군가 또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루프는 2008 년에 우리가 목격한 것들중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는 곤경에 처했고,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중산층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시간이 됐지요. 화합과 번영을 퍼트리기 위한 단체들이 모이고, 신분이 없는 사람 혹은 무명인 단체가 이 모든 상황을 발전시킬 프로토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내용 안에는 마침내 완성이 된 암호 보안 비트 코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트 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미셀이 있는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었기에 돈을 보내는 명령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제가 이만큼의 돈을 해킹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 하는 일일 것 입니다. 무엇을 보내려면,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제가 이만큼의 돈을 해킹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 하는 일일 것 입니다. 무엇을 보내려면,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입증하는 이들은 ‘마이너(miners)’ 이라고 불립니다. 인증이 끝난 후에는, 거래가 진행 될 것입니다. 이미지들을 보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블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들은 고유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들을 변경하고 싶다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체인으로 연결되어있는 다음 블록을 사용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하지만, 이 16자 해시 보안 키는 차단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산력이 높은 프로그램을 배치하려 하더라도 해킹을 하여 모든 체인들을 한번에 뚫으려고 하고 정보들을 바꾸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에 네가지 주된 특성을 만들어 줍니다: 빠르고, 신용할 수 있고, 변치 않으며, 제 3자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 기본적인 공업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짧게는 DLT)이며,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분권화 시대"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봉사했던 "클라우드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신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자신의 데이터까지 소유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유아 단계도 아니고 확실히 성인이 아닌 기술력은 사춘기에 있는 아이의 설명에 잘 들어간다. 이미 강력한 능력과 좋은 기대치를 보여 준 아이과 같다는 것이라 생각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급의 기술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프레임워크와 자신감을 강화하고 가장 지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인 시점을 두고 본다면, 메인 프레임을 채택하는 지지자들과, 그것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기술력에 저항하는 것은 결코 안좋은일은 아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따르다면, 기술력을 반대하는 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을 추진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DLT를 보자마자 의욕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 모델, 기존 기업 및 기존 기업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모든 부문은 사용자와 소비자의 능력 및 시민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DLT의 이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오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그들의 많은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중재의 “혼란스러운 효과”는 중재의 효과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닙니다. 가치 사슬을 규제하고, 위험과 자원 할당을 최적화시키고, 거래 비용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고객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을 개선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블록 체인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의 정과 신념은 오염되는 반면에, 전 세계의 신생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정부 기관들이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놀라운 백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자의 역할에서 규제자의 역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블록 체인의 이점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크레스트와 트로프를 가지고 목적지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LT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사법적 및 관료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기술에 필요한 확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도적인 확실성과 법적인 확실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적인 큰 기업들이 중소 기업들을 죽일 수 있는 마찰이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블록 체인 제품과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표준화 수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블록 체인은 단순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아름다움이 틀이고, 그 쓰임은 더욱 놀랍습니다. 변화를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의 수송 수단만이 아닌, 인프라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도 필수 조건입니다.

DLT 대체 수단과 비즈니스 모델들은 수천개의 플랫폼 옵션을 통해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는 미지수, 하지만 고려해야 할 측면은 DLT 생태계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화에 대한 저의 태도는 양쪽다 가중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간단하거나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은 단순하다/복잡하다 만으로 설명할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 수준과 혁신 원칙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화하는 기술 또는 혁신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규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연적인 원리에 따라서는, 기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호 통화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교환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지불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규제 원칙은 사업 모델 중립성이 규제 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불 사례에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회사에 비해 KYC의 요구 조건이 덜 엄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표준화 하려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신원, 스마트 계약,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제한된 표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명백히, 위에서 언급한 규제 접근법과 원칙은 영향력 있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선호와 신뢰를 깨지만,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벼운 접촉 방법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 규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규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장애물은 새로운 대단원과 새로운 범주화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한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는, 오랜 형식을 따르지 않는 스마트한 규제를 생각한 것이지요.

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은 ICO에 대해 논의하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ICO는 흥미로운 논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필수품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균중 자금 지원과 그와 함께 투자자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것을 도와줄, 실행 가능한 규제를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은 "개념 검증" 단계에서 "정량적인 결과" 단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기관의 관대함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 성장이나 돈을 버는 것보다 신뢰의 개념을 재창조하고 사회적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블록 체인은 매우 정치적인 주제이지만, 필요에 의해 블록 체인은 사회의 어느 구성원도 무관심하게 둘 수 없는 제도적 변화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블록 체인이 필요한 보살핌을 보여준다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